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2023.5.22)

1. 중국 선교를 위한 기도 / 멸망을 자처하는 지름길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탄압에 앞장서는 악행을 중지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떠난 후에 약화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00 지역에서는 정부의 압박으로 목회자들이 떠난 사례들이 있고, 10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담대하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 일꾼이 보낸 소식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들의 대부분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주를 신뢰하며 더욱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교회를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중국 정부가 3월에 개최한 양회 이후, 대다수 지역에서 교회와 사역자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자처하는 지름길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탄압에 앞장서는 악행을 중지시켜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한 중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믿음으로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탄압의 장벽에 무너진 교회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2. K선교사_선교사들과의 연합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1. 예루살렘선교센터의 연합 사역과 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동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회개와 치유,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2.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선교센터, 갈멜산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진행되게 하시고,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생명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3. 베들레헴선교센터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성경공부 그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깨우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3. 북한이 개방되는 날 동족 구원을 이루는 북한 선교를 감당하게 하소서!

“북한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남한에 온 사람의 생활상, 즉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해요. 또 북한에서 결혼하고 싶은 대상자 일순위로 당 일꾼, 안전원을 제치고 탈북민 가족이 꼽혔다네요. 예전엔 배신자라고 수근거렸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북한에 사는 지인과 통화한 탈북 자매가 전해준 소식이다. 3만 3천여 탈북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의 선봉에 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알리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웨치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들어보라 네 파수군들이 목소리 드높여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는 것을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도다” 이사야 52장 7~8절 말씀으로 복음통일의 마중물로 이 땅에 보내신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사, 북한이 개방되는 날 동족 구원을 이루는 북한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의 사역자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4. 육체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북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탈북민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9.2%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람을 연상케 하는 옷차림이나 꾸밈을 따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3.2%, 한국

노래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9.2%로 모두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학교에서 처벌받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0.6%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이 세상의 미디어가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지요 여호와와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나 일어나 있을 때에나 그것에 대하여 강론하라” 신명기 6장 4~7절 말씀으로 북한의 청소년들을 울려드립니다. 그들이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헛된 세상의 미디어나 시들어 버릴 육체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5. 북한 사람들이 성경 책을 미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소서!

“북한 사람들은 성경 책을 미신 책으로 알고 있어요. 몇 살에 결혼하고 자식은 몇 명을 낳고 몇 살까지 살겠는지, 그런 신수를 성경 책으로 본다고 생각하죠. 딱 인식이 그래서 ‘그 성경 책 나도 어디 가서 하나 얻어 봤음 좋겠다’라고 푸념하듯 말해요. 신수가 궁금해도 그거 보면 보위부에서 잡아가니까 다들 못 보는 거예요.” 성경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 탈북 성도가 귀땀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리고 그들이 영생 얻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20장 31절 말씀으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북한어 성경이 배달될 길을 열어 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모든 자의 손에 성경이 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